



소 현 희
(한솔동물병원 원장/수의사)

전염성F낭병(Infectious Bursal Disease) 에 대한 이해

감보로병은 대부분의 농장주가 스스로 진단 할 수 있을 정도로 필드에서 익숙한 질병 중에 하나이다.

많이 알려진 질병인 만큼, 이에 대한 백신 접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피해 또한 점차 줄고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아직도 부적절한 백신프로그램과 질병상황에 맞지않는 소독제를 선택하여 감보로병을 농장에서 떨치지 못하거나, 농장주가 감보로병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간혹 있다. 이런 사례를 참고하여 내 농장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농장주가 내 농장의 감보로병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에 있어서 공통사항은 후기 폐사율이 대체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농장주는 폐사의 원인으로 호흡기 질병(대장균증), 콕시듐증 등을 많이 이야기 한다.

이런 농장의 대부분은 예전에는 사육성적이 좋았는데, 근래에 와서 자꾸 성적이 나쁘고, 계사를 쉬었다가 입식하는 파스의 성적은 대체적으로 괜찮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처럼 농장에 감보로병 바이러스가 상재 할 경우, 어린 일령에 면역기관이 손상되어 다른 질병들에 쉽게 걸리게 된다. 농장에서 계군의

면역기관 손상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육계의 경우 2주령이 넘어섰을 때, 산란계의 경우 3주령이 넘어섰을 때, 닭을 부검을 하여 F낭과 비장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시기에는 F낭의 크기가 비장보다 큰 것이 정상적이다. 만약, 전반적으로 비장보다 F낭이 작을 경우에는 감보로병 바이러스를 포함한 면역억제인자가 농장에 상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만성적으로 농장이 감보로병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1년 가까이 중단 플러스 백신을 이용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백신을 접종하여야 농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환경에 저항력이 강한 감보로병 바이러스를 사멸할 수 있는 소독제를 선택하여 매 파스 정성스럽게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년 전에 4만수 규모의 육계농장을 소개받아 방문하게 되었다. 이때 농장주는 성적이 매 파스 계속 나빠서 지난번 파스에는 소독전문회사에서 사람들이 와서 계사 소독을 철저히 했으며, 소요비용이 100만원이 나 들었는데 성적은 또 나빠졌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농장에 여러 원인과 함께 감보로병 문제도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로, 어떤 소독제를 그렇게 많이 사용했는지 묻게 되었다. 농장주는 지난번에 사용했던 소독제 빈통을 보여주었는데, 놀랍게도 일반 4급암모늄 성분이었다.

다른 바이러스보다 환경에 저항력이 강한 감보로병 바이러스는 일반 소독제로는 쉽게 사멸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알데하이드류나 삼중염, 산성제제를 사용하여 소독하고, 중간독 플러스백신을 2회 접종하는 프로그램을 3파스 연속하기로 하였다. 지금은 농장의 감보로병 상황이 많이 안정화되어 1차는 중간독, 2차는 중간독 플러스백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중간독 백신만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경우처럼 만성적으로 감보로병 바이러스가 상재하여, 어린 일령에 면역기능이 손상되어 타 질병에 잘 걸리는 경우에는 1주령 전후에 1차 백신을 하고 7~10일 후에 2차 백신을 실시하거나, 올인-올아웃이 어려운 산란계의 경우에는 ING백신을 3일령 전후에 피하접종을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런 만성적인 사례와 약간 달리 특정 일령에 감보로병 증상을 보이며 폐사가 다발하는 사례들에 있어서는 백신접종 일자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접종일자를 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감보로병의 잠복기는 짧아서 감염 후 2~3일이면 임상증상을 보이며, 감보로병 백신을 음수로 접종할 경우, 역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기에는 5일정도가 소요된다. 농장에서 지난 파스에 감보로병이 발생했을 경우, 계사 오염정도에 따라 다음 파스에서는 2일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 또한, 입식 될 병아리의 모체가

행항체 수준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지난 파스에 20일령에 움추리고 졸고 있거나 항문에 백색설사가 묻어 있는 등의 감보로병 증상을 느낀 농장이 있다면, 잠복기인 2~3일 전에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었음을 감안하고, 음수 접종시 역가 형성을 위해 5일 정도는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다음 파스에는 기존 발병일 7일전인 13일령 이전에 중간독 플러스백신을 접종해야 할 것이다. 소독이 불충분하여 계사 오염도가 심하다면, 2일 정도는 더 앞당겨서 기존 발병일 9일전인 11일령 이전에 중간독 플러스백신을 접종해야 할 것이다.

계사 물청소도 깨끗이 하고, 소독제도 외막불형성 바이러스에 효과 있는 제제를 선택하여 충분히 실시하고, 기존 발생 일령 7~10일전에 중간독 플러스백신을 접종했는데도, 감보로병이 계속 발생한다면 백신 접종량을 늘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음수 접종시 급수기내 물을 완전히 비우고 백신 희석한 물만 2시간이내 공급하기란 매우 어렵다. 단수 후, 바로 공급되는 물은 급수라인에 있었던 맹물일 수 있고, 이 물을 섭취한 닭들은 백신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오류를 피하기 위해 백신희석 후, 급수기내 물을 일정량 버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백신량을 1.2배정도로 늘려서 2회에 나누어 실시하는 것도 음수접종시 실수를 줄여줄 수 있다.

백신 접종 일령과 방법을 내 농장에 맞게 선택하고, 계사의 오염도를 낮출 수 있는 적절한 소독을 실시한다면, 감보로병 피해가 없는 안정된 농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